

사설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왔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오자 그동안 이번 선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주민들도 점점 호기심을 보이면서 지역사회가 서서히 선거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란 국민 또는 주민을 대신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학자들이나 사상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분쟁을 조정하고 질서를 잡는 일이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치지 않고 회사나 학교, 교회, 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것도 정치에 속한다.

정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하지만, 그에 따른 혜택이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사업을

구상할 때 가장 먼저 국민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유권자인 국민들은 정치인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정치인이 많지 않으며, 유권자인 주민들도 심각한 심정으로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이 자신이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섰지만, 진정 지역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혹시 '배운 것이 있으니, 주위에서 출마 하라고 권해서, 권력을 얻고 싶어서' 등의 마음으로 선거에 뛰어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당선되면 지역의 미래발전보다는 자신이나 주위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

치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권자인 주민들도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누가 찍으라고 하니까, 인물이 잘생겼으니까' 등 바람직하지 않은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해서는 안된다. 특히 '머슴이나 일꾼'을 자처하는 후보자들에게 돈

을 바라거나 사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인 국민이 머슴인 정치인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바라는 것은 스스로를 머슴보다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꼴이 된다. 정치인을 만나면 물 한그릇이라도 건네야지, 반대로 머슴인 정치인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무쪼록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입후보자는 지저분한 흑색선전보다는 양심과 정적으로 승부를 걸고, 유권자인 주민들은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정의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혁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선거가 진행 '민주주의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우리 지역 人材發掘(인재발굴)은 미래희망이다. 우리 아름다운山河(산하, 산과 물) 해변 모래사장 바다엔 哀歡(애환) 인정이 우리 인심이다. 우리의 자랑-집집마다 인재 찾아 소질을 신장토록 가교 역을 다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제 오늘의 우리고성신문이 선봉 되어 名實相符(명실상부)한 3만 고성군민 전체가 기사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것.

우선 2012년엔 마을 有志(유지)를 찾는 일이다.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고성인이 되어 인정 많고 다정스런 새한국인으로 발전 성장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 즉 寬布而粟人(관포이물인 : 소중한 물건을 타인에게 나눔의 마음)의 기풍을 助長(조장)해야 하고 풍토화하는 것이다.

고성 발전성장에 이바지할 존귀한 인물

이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고성 발전성장에 이바지할 尊貴(존귀)한 인물이고 새로운 고성향약을 唱導(창도)하는 기수이고, 신뢰받는 고성주민이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文理密察(문리밀찰 : 진리에 맞는 면밀히 통찰하는 것)의 눈을 가진 Digital(디지털) 시민이라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 박애를 지닌 언론시민이라는 것은 自鳴(자명)한 일이다. 집집마다 웃음소리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우리 지역 인재발굴 과제

전파하는 신문 미래의 약속과 희망 새로운 高城 鄉約(고성향약)⇔高城 約東信賴(고성약속신뢰)를 구축하는 신문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송나라의 呂氏 鄉約(여씨향약) 이황의 禮安 鄉約(예안향약) 이이의 海州 鄉約(해주향약)이 있듯이 우리 고성엔 德業 相勸(덕업상권 : 좋은 일은 서로 권함)을 한걸음 나아가 稱讚 褒賞(칭찬하고 상을 주고)으로, 過失 相規(과실상규 : 잘못 된 것은 서로 고쳐 주고)는 慰勞 激勵(위로격려 : 위안 격정 힘을 주며)하는 것이며, 患難 相助(환난상호 :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며)는 相互 扶助(상부상조 : 서로 도와 구제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勸善 懲惡(권선징악 : 선은 서로

권하고 악은 징벌함)을 激勵?賞(격려포상 : 격려하고 포상을 함)을 통하여 해악 없는 명랑한 고성사회를 이룩하고, 살기 좋은 天涯 自然 景觀(천애자연경관) 사계절 아름다운 동해는 수평선엔 이글거리는 태양 속에서 복된 고성건설을 이룩하는 것이다.

마음을 합하면 그 무엇도 해결

다음은 127개 마을 草薺(초야)에 묻혀있는 귀중한 재원이 있다. 이들은 농업에 축산업에 어업에 임업에 경영과 공업에 각종 service에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광업에 업소에 각 직업에 종사하는 소중한 재원들이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은퇴 후 타향에서 고향에서 심신수

련하신 분들을 이 명예로운 분들의 일을 널리 알리고 더욱 굳건한 이웃으로 맞이하여 손을 맞잡는 일이다.

이러한 전 고성군민의 모습은 명예로운 언론인, 영광스런 주민자치로 우리 사회의 표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이 성숙된 자치 활동은 세계 여러 나라의 座標(좌표)가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適材 適所(적재적소 : 알맞은 인재를 적당한 장소에)에서 最大 能力 發揮(최대능력발휘)할 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자기에 맞는 일을 함엔 바람직한 처사이다. 다른 지방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함께한다는 것이다. 새 소식을 공유하고 희로애락을 나눠 가지자는 것. 즉 명예로운 고성신문에 '가칭 명예주주 명예사장 명예기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 이제는 하시라도 어디서든지 무엇이든 어떤 사실을 적나라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과 과학문명 발달로 인하여 전 군민을 '고성 알람'으로 스마트폰 핸드폰 기타 정보수단이 있기에 대동사회가 가능하다. 즉 실제에 응하는 이상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군민이 손을 맞잡아 마음을 합하면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있다.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 가운데 '사설'을 제외한 모든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란 기고·독자투고 원고 받습니다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고성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임 직 원 : 발행인 윤승근 편집국장 최광호 취재기자 원광연 총무과장 김창순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도연
칼럼위원 : 김광섭 김정균 김종식 김지연 남숙희 남영선 박형수 이선국 최금란 한성수 황연옥
시민기자 : 강성희 김일용 김태극 박선애 백옥식 장공순 최돈불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